

KMI 북방물류리포트

VOL.190
SEP 24 2021

발간년월 2021년 9월 24일(통권 제190호)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김종덕 **총괄** 이주호 **감수** 최재선 **담당** 김엄지·유지원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역구실 **TEL** +82-51-797-4776 **FAX** +82-51-797-4659



주요 동향

- 러시아 TELS 그룹, 극동-중국 도로운송 활성화
- 러, 노드 스트림 2를 지정학 무기로 사용 않는다.
- 러 7개 대형 인프라 사업, 국가복지기금으로 지원
- 무르만스크 교통허브 건설 재개...석탄 수출 확대
- Transgaz, 아르한겔스크 CNG 충전소 건설 사업 참여
- 러 연방 북극권 입주기업, 사하공화국에 집중 투자

주요 통계

- 2021년 8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건·액체화물)
- 2021년 7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 품목 규모
- 2021년 7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입 규모



주요 동향



러시아 TELS 그룹, 극동-중국 도로운송 활성화

그림. 블라디보스톡 도로 운송 요지 '금각교'



자료: <https://www.rzd-partner.ru/auto/news/iz-kitaya-vo-vladivostok-i-khabarovsk-za-7-10-dney/>

■ TELS, 중국-러 연해주/하바롭스크 연결하는 도로 운송 활성화 작업에 착수^{a)}

- 러시아의 국제 운송 및 물류 회사인 TELS 그룹의 중국 지사장인 타이시아 라조빅(Taisiya Lazovik)은 자사 고객들에게 기존의 해상 운송 및 철도 인프라의 한계 등의 문제로 발생하는 화물 공급 차질 위험을 낮추기 위해 대체 물류 노선인 도로 운송 노선을 마련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히면서
- 이 같은 도로 운송 구간 작업이 종료되면, 운송에 소요되는 시간이 화물 발송 및 수령 지역에 따라 7-10일 정도 될 것이라고 언급함
- 그리고 그는 화물 수송에 따른 보험과 중요 화물 수송 계약의 경우 평균 수송가보다 20~30% 비쌀 수는 있으나 일반 수송 비용보다 가격대가 현저히 높게 형성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현재 TELS 그룹은 도로 운송 활성화를 위해 화물 발송 업체 측의 운송 관련 서류 준비, 국경 통과

시 필요한 통관 과정 및 블라디보스톡·하바롭스크 화물 수령업체의 화물 수송 등을 위한 모든 관련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했다고 설명함

■ 러-중간 화물 수송, 해상·철도 노선이 아닌 도로 운송이 해법이 될 가능성 존재^{a)}

- 전통적으로 중국에서 러시아의 연해주와 하바롭스크 주로의 화물 수송은 해상과 철도로 이루어지지만, 현재 해상 및 철도 컨테이너 운송 시장 상황으로 볼 때 운송 지연 위험이 높아 화물 수령업체들의 기존 계약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임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는 해상 및 철도 운송이 아닌 도로 운송을 통해 중국 화물 발송 업체에서 곧바로 극동 지역의 수령업체로 화물을 수송하는 방법임
- 그러나 이 같은 방법 역시 지역의 특수성과 지역별 시차, 도로 수송 가능성에 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인해 도로 수송을 시행하는 기업은 많지 않은 실정이었음
- 전문가들은 TELS 등 국제 운송 물류 기업의 도로 운송 시행이 본격화된다면 해상·철도 노선의 대체 노선으로 도로 운송 노선의 이용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유지원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참고자료

- a) http://vch.ru/event/view.html?alias=iz_kitaya_vo_vladivostok_i_habarovsk_za_710_dnei(2021.9.22.검색)

러, 노드 스트림 2를 지정학 무기로 사용 않는다.

■ 러 외무차관, 가스 파이프라인을 정치·지정학 도구로 사용할 계획이 없다고 천명^{a)}

- 러시아 안드레이 루덴코(Andrey Rudenko) 외무차관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드 스트림 2 가스 파이프라인은 러시아와 유럽의 가스 부문 협력 프로젝트로, 오직 경제적인 목적에서 추진한 프로젝트일 뿐 미국·우크라이나 등 일부 국가들이 우려하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 또한 수십년 동안 유지해 온 러시아와 유럽의 가스 부문 협력은 러시아가 정치적 목적으로 가스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 최근 독일 메르켈 총리와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회담내용을 반박하는 의사 표시^{b)}

-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지난 8월 22일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이 가스관을 무기로 사용하면, 독일과 유럽이 새로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와 관련하여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노드스트림 2 가스관을 경제적 프로젝트가 아닌 ‘정치와 안보의 문제’로 본다면서 “가스관을 크렘린의 위험한 지정학적 무기로 간주한다”고 주장했다
-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그동안 유럽으로의 가스 수출을 위해 주로 이용해오던 경유국으로 노드스트림 2 완공 시 가스통과 수수료로 챙겨오던 연 20억~30억 달러의 수입을 잃게 됨

■ 러시아는 2024년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경유하여 유럽에 가스 공급 계획 견지^{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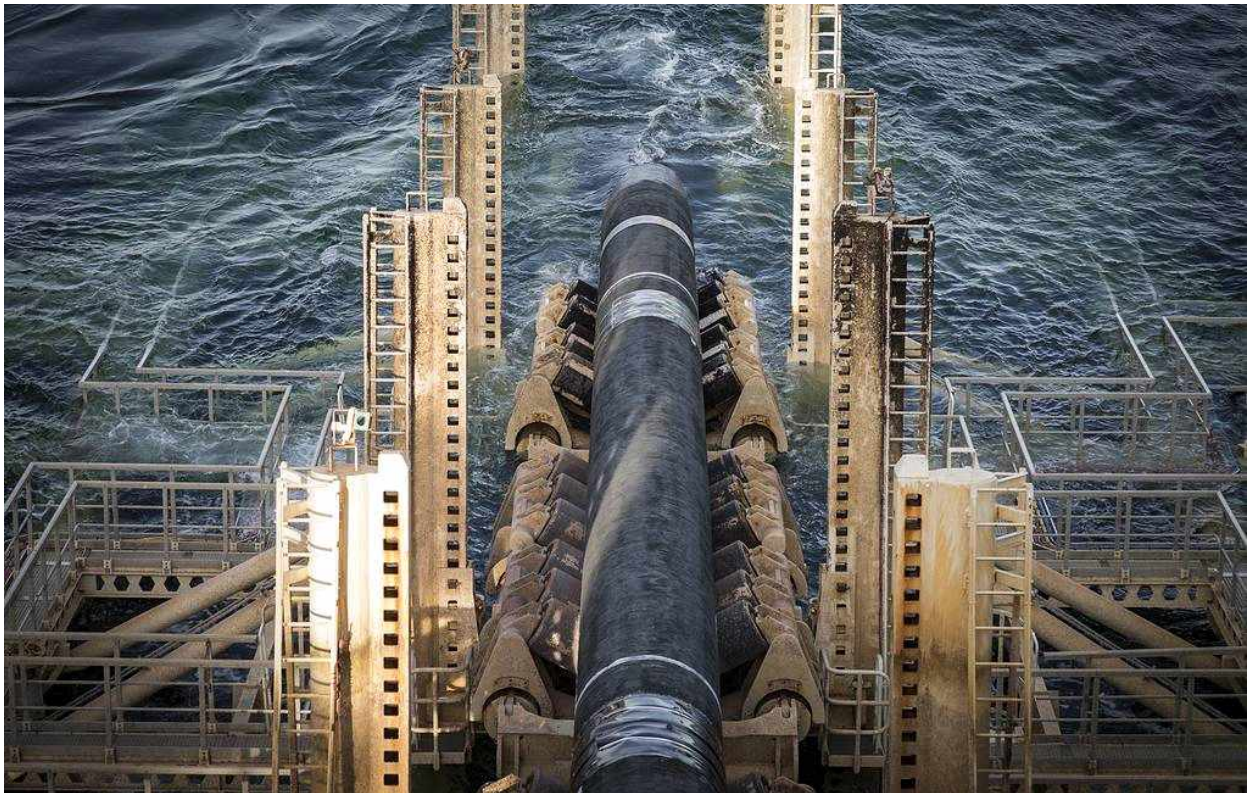
- 러시아는 2024년 이후에도 우크라이나를 경유하여 유럽에 가스 공급을 지속할 의사가 있지만 모든 것은 유럽이 얼마만큼의 러시아산 가스를 구매할지에 달렸으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 실정임
- 러시아는 유럽 국가의 수요가 충분할 경우 우크라이나 경유 가스관 유지를 지속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면서 지난 15년 동안 유럽에 수출되는 가스 규모가 두 차례 감축됐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 노드스트림 1·2가 공사 끝나면서 러시아 천연가스 수출 물량 2배 넘게 늘어나

- 러시아는 노드스트림 1 파이프라인과 함께 2기 공사까지 완료되면서 러시아의 연간 천연 가스 수출용량을 1100억 m³으로 두 배가량 늘리게 되었음

- 110억 달러가 투입된 이 프로젝트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제재를 가하면서 2019년 말 중단됐다가 약 1년 후 러시아 자체 파이프라인 부설 선박이 투입되면서 재개되었음
- 최근 9월 10일 러시아의 노드스트림 2 공급업체인 가스프롬은 러시아에서 독일까지 1200km 길이의 해저 파이프라인 건설 공사가 완공됐다고 발표하였음
- 하지만 가스프롬은 노드스트림 2를 통한 상업용 가스공급은 독일 규제 당국의 최종 승인이 날 때까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림. 노드스트림2 파이프라인 마지막 구간 완공 모습



자료: Axel Schmidt / Nord Stream 2

이슬기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sglee84@kmi.re.kr/051-797-4768)

참고자료

- <https://tass.com/economy/1341127>(2021.9.23. 검색)
- <https://www.telegraph.co.uk/news/2021/09/22/russia-outmanoeuvred-germany-nord-stream-2-now-whole-europe/>(2021.9.23. 검색)

러 7개 대형 인프라 사업, 국가복지기금으로 지원

■ 러시아 국가복지기금을 투자하여 7개 인프라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a)}

- 러시아 정부는 고속도로, 중부 지역 철도, 바이칼-아무르 철도(BAM) 및 시베리아 철도의 현대화 프로젝트 등을 포함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국가복지기금 지원 결정함
- 국가복지기금 지원 대상이 되는 7개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음
 - 1) 야쿠트 클러스터(BAM-3): 1,880억 루블 지원(총 예상 사업금액: 7조 5,240억 루블),
 - 2) 양가라-예니세이 지역 개발 사업: 1,550억 루블(총 예상 사업금액: 1조 8천억 루블),
 - 3) 모스크바-니즈니노보고로드-카잔 고속도로 1,500억 루블(총 예상 사업금액: 6,230억 루블),
 - 4) 지역 난방온수 시스템 현대화: 1,500억 루블(총 예상 사업금액: 미정),
 - 5) 중앙교통 허브 철도 인프라 개발: 1,050억 루블(총 예상 사업금액: 미정),
 - 6) 페테르부르크 지하철 철도 차량 현대화: 970억 루블(총 예상 사업금액: 1,290억 루블),
 - 7) 카잔-에카테린부르크 고속도로: 500억 루블(총 예상 사업금액: 4,390억 루블) 등임
- 러시아의 경우 2019년 12월 재정부의 예산 개정안에 따라 국가복지기금의 유동성이 GDP의 7% 이상일 때, 인프라 개발에 투자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별 국가복지기금의 지원이 20%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어 '주요 인프라의 현대화 및 확장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에 국가복지기금 지원을 결정하게 됨
- 예산 규정에 따르면, 우랄 석유가 배럴당 40달러 이상일 경우 발생하는 모든 석유 및 가스 수입은 국가복지기금으로 들어가며, 40달러 이하일 경우 차액은 국가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2021년까지 지난 2년간 러시아 국가복지기금의 유동성은 GDP의 7% 이상이였으며, 2021년 5월 1일 기준으로 할 때 13조 8,254억 3,000만 루블로 유동성은 GDP의 7.5% 수준(약 1,857억 루블)으로 GDP의 0.5%(약 5,800억 루블)를 투자할 수 있으나 2021년 말까지 국민복지기금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주요 인프라의 현대화 및 확장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은 앞으로 기존 연방 프로젝트 차원에서 메가 프로젝트(BAM과 시베리아 철도의 확장, 북극항로 개발, 지방 공항, 고속철도 개발 등)로 변경될 예정이며, 관련 자금 조달과 실행 방식도 변경될 것으로 보임
- 러시아 정부는 거대 프로젝트 변경에 따라 예산 관리가 더욱 유연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기존 ‘주요 인프라의 현대화 및 확장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의 일부는 다른 국책사업으로 이관할 것임

■ 도로·물류 현대화 프로젝트로 2024년 화물수송량 1억 8,000만 톤 달성 목표^{b)}

- 이 같은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야쿠트 클러스터”는 바이칼-아무르 철도(BAM) 및 시베리아 철도(BAM-3)의 야쿠티아 석탄 채굴 지역에서 러시아 극동 항구로 이어지는 철도의 운반 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3단계 현대화 프로젝트로,
- 1단계는 2021년까지 1억 4,400만 톤까지 운송량을 증가시키는 것이며 2단계는 2024년까지 화물 수송량을 1억 8,000만 톤까지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야쿠티아 주지사 아이센 니콜라예프(Aisen Nikolaev)와의 회담에서 철도의 현대화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바이칼-아무르 철도(BAM)의 동부 지역개발을 위한 추가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하였음
- 이에 앞서 2021년 4월에는 러시아 철도청장 올레그 벨로제로프(Oleg Belozеров)가 바이칼-아무르 철도(BAM) 및 시베리아 철도(BAM-3) 3단계 현대화 프로젝트에 25%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 발표한 바 있음
- “야쿠트 클러스터” 현대화 프로젝트에는 2번째 노선(틴다-바니노), 추가 2차선로 1,184km, 본선 674km, 아무르-예니세이 교량, 제2 세베로무이스크 터널(또는 우회로), 하바롭스크 우회로 건설 등 총 183개 사업이 들어 있으며, 2030년 야쿠티아-바니노항 철도의 목표 화물 수송량은 2억 1,100만 톤임
- 부랴티아의 세베로무이스크 터널은 2003년에 개통된 러시아에서 가장 길고(길이 15km 이상), 바이칼-아무르 철도(BAM) 노선 중 가장 좁은 터널인데, 제2터널 건설 공사가 끝나면 현재 연간 1,600만 톤이 운송되는 석탄 물량이 1억 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철도 화물 수송능력이 부족한 야쿠티아에서는 연간 지속적인 석탄 수송에 지장을 받고 있는데, 사하 공화국(야쿠티아) 정부에 따르면, 200만 톤이 넘는 석탄이 야적 창고에 보관되어 있으며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러시아 철도청에 고정 석탄 수송협정을 맺자고 했으나 특정 지역 상품의 운송 우선순위를 매길 수 없다며 거부하는 바람에 체증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BAM-3 프로젝트가 실현되지 않는 한 야쿠티아에서 극동 항구로 운반되는 석탄량은 증가할 수 없어 야쿠티아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에 따르면, 바이칼-아무르 철도(BAM) 수송능력은 2024년까지 1.5배 증가(연간 1억 8,000만톤)하고, 서-동 방향의 컨테이너 화물 운송 기간은 7일까지

단축될 것으로 보임

- 이 사업의 1단계 공사는 2021년 완공될 예정인 670km의 선로 건설사업과 1,300km에 달하는 2단계 철도 선로를 건설하는 사업인데, 2024년까지 컨테이너 운송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은 약 7,800억 루블로 책정되어 있음

강하람 리포터,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wish125@hufs.ac.kr)

무르만스크 교통허브 건설 재개...석탄 수출 확대

■ 러시아 석탄 수출 확대하는 라브나(Lavna) 석탄 수출 터미널 공사를 재개^{a)}

- 러시아 연방 정부가 주도하는 ‘무르만스크 교통허브 프로젝트’는 러시아 북극 전략의 우선 순위에 포함된 사업이지만 시행사와 연방정부 교통부 간의 계약이 종료된 후인 지난해 9월부터 공사가 중단되었음
- 하지만 유럽의 안정적인 신재생에너지 제공이 원활하지 않자 석탄 화력 발전소가 다시 활력을 얻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석탄 가격 상승으로 러시아는 석탄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첫 번째 목표인 라브나 석탄 터미널 공사를 재개하였음
- 이 프로젝트에는 콜라베이 서쪽 해안을 따라 건설되는 46km의 철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새 노선은 라브나 신항만과 터미널에 연결됨. 현재 프로젝트 공정률은 56.4%로 철도는 2023년에 완공될 예정임

그림. 라브나 석탄터미널 조감도



자료: 무르만스크 연방정부

■ 완공되면, 북극 항로를 통해 아시아 지역으로도 석탄 수출 시장 다변화^{a)b)}

- 지금까지 무르만스크에서 수출된 대부분의 석탄은 유럽시장으로 운송되었지만, 이번 라브나 운송 허브가 완공되면 북극항로를 통해 아시아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뿐만아니라 무르만스크 정부는 새로운 터미널 완공으로 최대 2만 5,000개의 일자리 창출 및 600명 이상의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대규모 산업화 계획의 일부일 뿐 우리에게서는 141개의 다른 프로젝트들이 존재한다고 강조하였음
- 안드레이 치비스(Andrei Chibis) 무르만스크 주지사는 러시아 국영 통신사 타스(Tass)를 통해 이번 건설 프로젝트는 러시아 연방 정부가 시행하는 로드맵의 일부로 진행된다고 설명하며,
- 라브나 터미널은 화물 환적과 관련하여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최신 기술을 사용하여 건설될 예정이고, 매우 엄격한 환경 표준에 따라 폐수처리 방식 등에 현대 기술을 적용할 것이므로,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터미널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음

그림.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인력들을 위한 캠프 건설 현장



자료: 무르만스크 연방정부

이슬기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sglee84@kmi.re.kr/051-797-4768)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참고자료

- a) <https://www.arctictoday.com/construction-resumes-at-a-murmansk-transport-hub/>(2021.9.23. 검색)
- b) https://www.korabel.ru/news/comments/stroitelstvo_terminala_lavna_murmanskogo_transportnogo_uzla_nachalos_v_zapolyare.html(2021.9.23. 검색)

Transgaz, 아르한겔스크 CNG 충전소 건설 사업 참여

■ Transgaz, 아르한겔스크 CNG(Compressed Natural Gas) 충전소 건설·운영 ^{a)}

- Transgaz(트란스가즈)는 4억 5,000만 루블을 러시아연방북극권에 투자하여 러시아연방북극권에 입주한 200번째 기업이자 아르한겔스크에 입주한 58번째 기업이 되었음
- 이번 투자를 통해 이 지역에 최소 1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Transgaz는 투자금으로 아르한겔스크 및 아르한겔스크 주에 위치한 세베로드빈스크, 프리모르스키 지역에 CNG(Compressed Natural Gas, 압축천연가스) 충전소 건설 및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충전소는 연중무휴로 운영되어 일일 2,000대의 차량에 대한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사업은 차량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경감시켜줄 뿐만 아니라, 천연가스가 휘발유보다 2~3배, 경유보다 2.5배 저렴하므로 사업용 및 개인용 차량 차주의 차량 연료와 윤활유 소비 감소를 가능하게 함
- Transgaz의 알렉산더 수다코프(Alexander Sudakov) 이사장은 최근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조만간 러시아의 가스 안전 및 위생 관련 기관과 협의를 끝내고, 소비자 권리보호 감독청에 프로젝트 승인 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 아르한겔스크 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에 위한 세제 혜택 지원 예정

- 아르한겔스크 주 러시아 연방북극권 입주기업 프로젝트는 총 240억 루블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고, 1738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계획됨
- 입주기업들은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받는데, 첫 수익 창출 시점 이후 5년간 5%의 법인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5년간은 10%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입주 후 첫 5년간 0.1%, 이후 5년간 1.1%의 재산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러시아의 ‘세금납부간소화시스템’을 이용하는 입주 기업들은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과세액이 수익과 같을 경우 세율은 1%임
- 이와 함께 수익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납부간소화시스템’을 이용하는 입주기업의 경우 5%의 세제 할인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세금, 보험료 등이 연체되지 않은 기업의 경우 5년간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음

유지원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백가희 실습생,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러 연방 북극권 입주기업, 사하공화국에 집중 투자

■ 6개 입주기업 및 30개의 잠재적 투자기업 9억 루블 이상 사하공화국에 투자 예정^{a)}

- 마야 다닐로바(Maya Danilova) 사하공화국 경제부 장관은 지난 제6차 동방경제포럼(EEF)에 참석하여 현재 6개 기업이 사하공화국 러시아연방북극권 지역 입주기업 자격을 획득했으며, 프로젝트 구현을 위해 9억 730만 루블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219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함
- 현재까지 30개의 잠재적 투자기업들이 사하공화국 러시아 연방북극권 지역에 사업을 시행할 의향을 가지고 Arctic Russia 포털에 기업 등록을 진행하였음
- 그는 주석 광산 개발, 사하공화국의 ‘Pleistocene park’ 자연보호구역을 기반으로 한 연구실험 작업, 기술 검사 기지 설립, 철 금속 가공 및 재활용, 소형 항공기를 이용한 화물 및 여객 운송 시행 운송사 마련 및 외곽 지역의 산업용 전력 공급 시설 현대화 등과 같은 프로젝트들이 사하공화국 북극 지역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함
- 이 프로젝트들이 진행되는 사하공화국 내의 13개 북극 지역은 다음과 같음 : 아비스키(Abyysky), 알라이호프스키(Allaikhovsky), 아나바르스키(Anabarsky), 불룬스키(Bulunsky), 베르흐네콜림스키(Verkhnekolymsky), 베르호얀스키(Verkhoyansky), 니즈네콜림스키(Nizhnekolymskiy), 지간스키(Zhigansky), 몸스키(Momsky), 올레넥스키(Olenyoksky), 스레드네콜림스키(Srednekolymsky), 우스치-얀스키(Ust-Yansky), 에베노-비탄타이스키(Eveno-Bytantaysky)

유지원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백가희 실습생,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주요 통계



표. 2021년 8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건화물 및 액체화물)

(단위: 백만 톤, %)

수역*	건화물	액체화물	합계	2020/2021 증감율
극동지역	11.78 (+4.1%)	5.9 (-4.0%)	17.68	+1.3%
북극해	3.03 (+1.1%)	4.72(-3.2%)	7.75	-1.9%
발트해	10.1 (+7.2%)	11.09 (-2.9%)	21.19	+1.6%
아조프-흑해	11.35 (+9.5%)	11.36(-0.3%)	22.71	+3.8%
카스피해	0.18 (-31.9%)	0.41 (-0.3%)	0.59	-13.7%
합계	36.44(+5.8%)	33.48(-2.2%)	69.92	+1.6%

* 주: 극동해역: 블라디보스톡, 자루비노, 올가, 포시에트, 나호트카, 보스토치니, 바니노, 소비에트야가반, 데-카스트리스, 네벨스크, 홀름스크, 프리고로드노예, 마가단,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스키

북극해: 무르만스크, 칸달라크샤, 나리안마르, 두딘카, 아르한겔스크, 오네가, 바란데이, 페벡, 사베타

발트해: 상트페테르부르크, 프리모르스크, 브보스크, 비소츠크, 우스트-루가, 칼리닌그라드

아조프-흑해: 노보로시스크, 겔렌지크, 투압세, 타간로크, 아조프, 로스토프 나 도누, 다망, 템류크, 카프카즈

카스피해: 아스트라한, 올라, 마하치칼라

** 주: 누적 물동량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유지원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참고자료

a) [https://portnews.ru/news/316908/\(2021.9.15. 검색\)](https://portnews.ru/news/316908/(2021.9.15. 검색))

b) [https://portnews.ru/news/318498/\(2021.9.15. 검색\)](https://portnews.ru/news/318498/(2021.9.15. 검색))

표. 2021년 7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출입 품목 규모

(단위: 천 달러)

EAEU 코드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01-24	식료품 및 원자재	318,482.8	47,484.0	1,007.7	1,164.3	319,490.5	48,648.4
25-27	광물 제품	1,988,305.9	47,832.0	38,259.6	23,011.8	2,026,565.4	70,843.8
27	연료 및 에너지 제품	1,673,666.6	42,387.7	306.8	2	1,673,973.3	42,389.7
28-40	생고무 화학 제품	5,513.3	66,717.2	1,217.1	590.7	6,730.3	67,307.9
41-43	가죽원료모 피 제품	23.6	1,857.4	12.2	21.5	35.8	1,878.9
44-49	목재 및 펄프, 종이 제품	104,588.4	9,265.3	173.6	1.6	104,762.1	9,266.9
50-67	섬유·섬유제 품 및 신발	199.9	51,395.5	65.7	510.4	265.6	51,905.9
72-83	금속 및 금속 제품	162,923.1	99,501.7	770.6	2,421.2	163,693.7	101,922.9
84-90	기계류	102,450.1	620,022.0	1,375.4	3,712.9	103,825.5	623,735.0
68-71, 91-97	기타	368,559.2	40,331.8	49,683.9	291.6	418,243.1	40,623.4
	합계	3,051,046.2	984,406.9	92,565.7	31,726.0	3,143,612	1,016,133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유지원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참고자료

a) [https://dvtu.customs.gov.ru/statistic/2021-god/operativnaya-informacziya\(2021.9.15. 검색\)](https://dvtu.customs.gov.ru/statistic/2021-god/operativnaya-informacziya(2021.9.15. 검색))

표. 2021년 7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입 규모

(단위: 톤, 천 달러)

EAEU 코드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0302	냉장수산물	419	523.9	-	-	-	-	-	-	419.1	523.9	-	-
0303	냉동수산물	76,198	111,405	170	746.6	20	21.3	-	-	76,218.1	111,426.3	170	746.6
03031	연어	2,702	19,813.4	-	-	0	0.0	-	-	2,701.6	19,813.4	-	-
030331	광어	233	1,421.3	-	-	-	-	-	-	232.7	1,421.3	-	-
030332	가자미	1,565	1,436.8	-	-	-	-	-	-	1,564.8	1,436.8	-	-
030339	기타 넙치류	1,970	1,584.9	-	-	-	-	-	-	1,969.8	1,584.9	-	-
030351	청어	13,555	8,475.6	-	-	0	0.0	-	-	13,554.5	8,475.6	-	-
030363	대구	8,246	21,578.1	-	-	-	-	-	-	8,245.8	21,578.1	-	-
03036 70000	명태	26,989	25,743.7	-	-	20	21.3	-	-	27,009.2	25,765.0	-	-
03038 93	농어	12	42.2	-	-	-	-	-	-	12.3	42.2	-	-
030391	알류	3,347	20,954.8	-	-	-	-	-	-	3,346.6	20,954.9	-	-
030399	지느러미, 머리, 꼬리 및 기타 식용 어패류	798	1,007.0	-	-	-	-	-	-	797.9	1,007.0	-	-
0304	생선 필레	11,120	33,774.7	122	471.0	18	44.5	-	-	11,138.1	33,819.2	122	471.0

0305	훈제 생선, 생선 가루	21	30.9	79	516.3	0	0.0	-	-	20.6	30.9	79	516.3
0306	갑각류	5,731	139,181.9	103	749.5	-	0.0	-	-	5,731.0	139,181.9	103	749.5
030614, 030633, 030693	게	5,156	132,107.2	-	-	-	0.0	-	-	5,155.9	132,107.2	-	-
0307	조개류	3,605	9,752.2	-	-	0	0.0	-	-	3,605.2	9,752.2	-	-
03072	가리비	234	437.4	-	-	-	-	-	-	234.2	437.4	-	-
03074, 03075	오징어 및 문어	3,027	6,857.6	177	557.4	0	0.0	-	-	3,026.6	6,857.6	177	557.4
0308	수생 무척추 동물*	809	3,489.8	-	-	0	0.0	-	-	809.0	3,489.8	-	-
03081	해삼	280	662.2	-	-	0	0.0	-	-	280.2	662.2	-	-
03082	성게	529	2,827.6	-	-	-	-	-	-	528.8	2,827.6	-	-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유지원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참고자료

a) <https://dvtu.customs.gov.ru/statistic/2021-god/operativnaya-informacziya>(2021.9.15. 검색)